

# 경영성과금의 DC적립효과



김현기 역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0

경영 성과금이란 근로 대가인 '임금'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경영성과금은 급여로 받거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입금해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경영 성과금을 급여로 받는 것보다 DC형에 적립하여 나중에 일시금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경영성과금은 급여로 받으면 당해 연도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6%~41.8%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면 퇴직시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계속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부분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편을 참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면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으로 적립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방법이 있고, DC로 적립하여 퇴직시 일시금 출금하여 퇴직소득세를 내는 방법과 계속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소득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퇴직연금규약에 경영 성과금 관련 내용이 있을 것. 둘째, 규약에 경영 성과금의 퇴직급여 적립 비율이 명시되어 있을 것. 셋째, 근로자는 개별로 성과금의 퇴직급여 적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넷째, 경영 성과금을 적립할 수 있는 DC제

도에 가입하고 있을 것 등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 성과금의 DC 적립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근로소득세 세율이 높은 근로자는 DC 적립하여 일시금 출금 또는 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또는 연금소득세율)

둘째, 경영 성과금이 DC로 적립되면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셋째,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 대비가 한층 더 두터워 질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내외50연구소장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 신년맞이 고객소리 청취 나서 NH농협생명은 8일 오전 서기봉 대표이사(오른쪽)가 스마트콜센터를 찾아 김민희 최우수 상담사와 콜칭취를 체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서 사장의 이번 콜센터 체험은 신년을 맞아 고객 최접점에서 일하는 NH농협생명 스마트콜센터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 사장 외 강태호 전략총괄부사장 등 부장급 이상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농협생명



푸르덴셜생명, 2018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파견 푸르덴셜생명은 임직원과 라이프플래너 3명, 고객 자녀 12명으로 구성된 2018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돌곶 읍 마을에 머무르며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과 위생교육봉사를 실시한다. 또 마을 내 도로 보수 공사, 학교 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푸르덴셜생명

# 가맹사업 상생의 길은



이상현 역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연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갑질', '보복출점', '통행세', '일방적 통제', '강요' 등이다.

모두 절대적 권력이나 권한에 의한 약자의 의무항목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의 중심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문화된 계약서 기반의 갑을관계 사업형태에기에 가능한 내용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취업자수 2674만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86만명으로 25.6%에 달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평균은

15% 미만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너무 많아 공생하기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자 중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2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나홀로 사장이거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영업을 지원한다. 그만큼 창업시장은 어려움을 지나 암울하기까지 하다. 특히 7530원으로 대변 되어지는 임금인상은 더욱 그러하다. 소위 '목숨형 창업' 전선에 합류한다.

그들 중 많은 창업자들은 당연히 노하나 경험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가맹사업은 철저한 계약서 기반형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가맹사업 법외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약속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해야한다. 일정한 조건과 업력 그리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를 조목조목 심사를 통해 갑질로 야기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요한 역할이기도하다.

아울러 논란의 중심인 계속 가맹금의 범위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콜라와 사이다는 전용상품이고 특정 브랜드의 맥주는 비전용상품이라는 해석도 있듯이 그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을 업계 스스로의 자성과 상생노력, 실천수법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가맹점사업자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선 소장(컨설팅학 박사)



중근당, 독거노인·저소득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진행 중근당은 지난 6일 신입사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근당 신입사원들은 금촌동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또한 골목 곳곳에 쌓인 눈과 얼음으로 이들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제설용 모래주머니 150여 개를 만들어 결빙구간에 배치했다. /중근당



SK매직, M.C격려 연도 시상식 개최 SK매직은 렌탈 고객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 매직케어(M.C)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8 연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고상인 SK매직상은 남양주 도농지국 서현민 매직케어, 강북지부 김예숙 지부장, 일산서부지국 박경신 지국장, 인천계양지국 오대권 지국팀장 등 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총 128명의 매직케어가 각 부문별 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해외여행권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전속모델인 현빈, 류권주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가 'SK매직상'을 받은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매직



코스콤, 사업목표 달성 신년 워크숍 코스콤은 2018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임원 및 직책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콤은 지난 6일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임원 및 직책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신년 산행을 갖고 2018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호제창 및 단합행사를 진행했다. /코스콤

- 인사**
- ◆**고위공무원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순 ◇ 3급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상권 ◇ 4급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준 △ 법무연수원 총무과 배성용 ◇ 4급 전보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천재 △ 검찰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관 △ 운영지원과 김진섭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김정복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이석재 △ 서울구치소 시설과장 조록환
  - ◆**국토교통부** ◇ 전보 △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경석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김중현
  - ◆**교육부** △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승현 △ 전라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황홍규 △ 경상남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기민 △ 사회정책협력관실 파견(사회정책 3팀장) 서기관 금정수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기획팀장) 서기관 오응석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정책협력팀장) 장학관 송달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술서기관 정병호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사무관 박현정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주사 김영삼
  - ◆**문체부** △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
  - ◆**농림축산식품부** ◇ 실장급 승진 △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 실장급 전보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허태웅 ◇ 국장급 전보 △ 농촌정책국장 오병석
  - ◆**메트로신문** ◇보임(겸직) △ 편집국 유통&라이프 부국장 김승중(정책사회부장 겸직) ◇승진 △ 편집국 부국장 산업부 윤희중 △ 경영지원실 부장 박성호
  - ◆**아시아타임즈** △ 사장 겸 편집국장 임춘성
  - ◆**에너지경제신문** △ 부사장 겸 편집국장 손병수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